

APEC 정상회의서 ‘한지 품격’ 선보인다

전주문화재단 한지진흥원,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 전시·물성 시연 참여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한지진흥원이 29일 경주 월정교 북측 광장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 한지·한복 홍보 부스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 및 내빈 약 200여 명이 참석하는 자리로, 전통문화의 품격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한국의 대표 문화자산인 '한지'와 '한복'을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다.

28일 한지진흥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 전시와 물성 시연을 진행한다. 특히 관람객들이 한지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지 물성 측정 장비(내절도 시험기)를 설치, 한지의 강도와

질감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포상증서 제작에 실제 사용되는 전통한지 샘플과 함께, 전국 장인들이 제작한 다양한 전통한지를 선보여 한지의 기술적 완성도와 미적 가치, 지속가능한 제작 체계를 폭넓게 알릴 예정이다.

한지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한지 전문 시험·분석 기관으로, 한지의 물리적 특성(평량·두께·인장강도·인열강도·파열강도·내절도·백색도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분석 항목을 국제표준(ISO)에 맞춰 수행함으로써 국내 한지 산업의 품질 신뢰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홍보부스는 국립경국대학교 전미경 교수와 고소미 작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특별 무대에서는 한국한복진흥원 주관의 한복 패션 쇼가 펼쳐진다. 세 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한지·한복 홍보 프로그램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 가운데서도 한국 전통문화의 품격과 창의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지의 품격과 과학성을 세계에 선보일 뜻깊은 무대"라며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지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제11회 혼불문학축제’ 남원서 개최

11월 1~2일 혼례길·상여길 재연 행사·다들이 공연 등 풍성

문학이 삶으로 피어나는 마을 축제, '제11회 혼불문학축제'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남원시 사매면 소재의 (구)서도역과 혼불문학관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소설 혼불 속에 담긴 삶과 죽음, 사랑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현재의 마을에서 되살리며 문학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전통문화 축제로 기획,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혼례길 재연은 전통 혼례문화를 되살려 옛 풍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사매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신랑, 신부, 하객으로 직접 참여해 풍물

패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행렬을 이루며, 신부가 가마를 타고 마을길을 따라 이동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인 상여길 재연 행사는 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던 전통 장례문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프로그램으로, 상여소리와 상여꾼들의 발맞춤, 그리고 주민들의 애절한 전혼 노래가 어우러져 삶과 죽음,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낸다.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숙연해지며, 공동체의 따뜻한 배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축제는 다들이 공연, 그리고 사매면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자들의



한스런 삶을 풀어가는 물박공연 등 독특한 공연들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 ‘아빠랑 캠프’ 운영

전북여성가족재단 산하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가 지난 25~26일 익산과 완주 일원에서 ‘아빠랑 캠프’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캠프는 도내 14개 시군 가족센터 및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선발된 아버지와 자녀 13가정(26명)이 참여했다.

도가족센터는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를 촉진시키고, 또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했다.

첫째 날(25일)에는 삼례문화예술촌 그림책미술관, 국립익산박물관과 미륵사지 관망, 익산 공룡테마파크 다이노키즈월드 체험하고, 둘째 날(26일)에는 완주 대둔산에서 체험활동의 내용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우소영 센터장은 “‘아빠랑 캠프’는 가족이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자도서관 ‘온책방’ 서비스 운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온책방’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집, 학교, 직장,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온책방은 웹사이트 또는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애플리케이션에서 ‘온책방’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온책방은 간단한 회원가입 후 매일 전자책 3권, 오디오북 2권을 14일간 무료로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반납된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도서를 다시 대출할 수 있다. 현재 온책방은 약 16만 종의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제공, 서비스는 12월 19일까지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6)

우리도 끼워줘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천을 수놓고 봄바람이 온 세상을 꽃향기로 뒤덮고 있었지만 남준과 명희를 비롯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폭압과 약탈에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남준 명희 같은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먼저 운동장에 모여 천왕을 찬양하는 인사와 노래, 일본군의 무운장구를 외치는 구호 등을 외쳤고,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근처 산에 올라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하는 일에 동원되는 시간이 더 많았다.

평과리와 징을 공출당한 이후 남준과 명희의 부모들은 굿판을 벌이는 일은 아예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겨우 당풀판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맞아 점을 쳐주거나 상담을 해주는 일을 했으며 간간이 굿을 해달라는 사람들을 찾아가 집안에서 개인굿을 해주며 연명하고 있었다.

신동래와 연기택은 수수비로 부엌 바닥을 쓸거나, 아궁이에 불을 땔 때나, 측간에 갔다 올 때나, 어쨌든 아무 때나 일본 놈들이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씨우적거렸다. 물론 강병도나 박규환도 아내들의 중얼거림에 전연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같은 말을 했는데 남준과 명희는 절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남준네나 명희네도 같은 고개를 넘어야 했음으로 곤궁한 봄을 지냈다. 그나마 두 집안 모두 아이들이 물밖에 없어 입들이 많지 않은지라 그러저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세월은 벌써 여름으로 치닫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힘들었지만 아동들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놀이를 하며 키웠다.

무장읍에서 명희의 동네인 황전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남준의 뽕밭마을을 지나야 했으므로 명희는 남준과 등하교를 같이 하는 때가 많았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는지 남준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 명희는 하교 길에 남준의 집에 가봤으나 남준의 여동생 남주만 있을 뿐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남주는 부모님과 오빠가 만화리 복흥마을로 굿을 하러 갔다고 말했다. 명희는 남주와 놀아주기로 하고 마당에서 작은 돌을 주워 공기놀이를 했다.

공기놀이가 지겨워질 때 짝 집 토담 밖에서 여자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는 지 노랫소리와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 명희는 남주 손을 잡고 씨리문을 나가

토담 뒤로 돌아가봤다.

다들 같은 무장국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으므로 얼굴이 익었고, 같은 학년 아이도 하나 보였다.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명희는 고무줄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남주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뱉었다.

옆에서 듣는 명희는 남주의 작은 음성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아이들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자기들끼리 강충거리며 고무줄을 넣고 뛰는데 바빴다.

“언니, 나도 저거 하고 싶다고.”

남주는 아예 마음을 숨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해냈다. 명희는 망설여졌다. 아이들이 끼게 해줄까. 당골래 딸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우리도 끼워주면 안될까?”

명희는 용기를 내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붙여봤다. 아이들은 명희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반응이 없었다. 명희의 목소리가 작지는 않았다. 그들은 명희와 남주를 아예 무시했다. 명희의 불이 별절게 상기되었다.

“우리도 끼워줘.”

명희는 아이들이 귀를 먹지 않은 이상 들릴 정도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명희와 남주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은 명희와 남주가 당골래 딸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아아!”

남주는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남주가 울어도 고무줄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힐끔 쳐다볼 뿐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그대로 놀이에 열중했다.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검색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 농지연금사업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보장 등 경영정상화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

